

축산업 경쟁력확보에 역점둘터



△먼저 한국축산기자재협회의 정식 출범을 축하드리며 한국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기대합

니다. 초대 회장을 맡아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감은 어떠신지요?

△양창욱 : 그간 뿌리도 없이 축산업의 곁에서 기자재 산업을 해온게 사실입니다. 같은 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을 규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허가를 받는데 까지도 상당한 고충이 따랐습니다.

특히 축산기자재가 일반 농기계와 다르다는 점을 이해시켜가며 뛰어야 했던게 가장 큰 난제였지만 관련업계, 학계, 언론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능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축산기자재협회가 공적인 단체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나가며, 관

런 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시책에도 부응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이 있어 어깨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축산기자재라 하더라도 그 분야가 세분화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심점을 찾았으며 어떤 취지로 협회를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요?

△양창욱 : 지적하신대로 축산도 업종이 다양합니다. 기자재는 주로 외제품을 모방하여 제작하거나 나름대로 편리성을 감안하여 제작하여 공급했던게 사실인데 농가의 숫자나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제작업체도 모방 단계를 벗어나 독창적인 기자재를 개발하게 되었으나 또다른 모방이 쉽기 때문에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해 같은 업자간에 숨가쁜 경쟁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질이 오히려 저하되는 양상이 나타나자 수입기자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버리는 가운데 기자재 업체도 스스로의 생존권을 찾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 설립

은 우리나라 축산기계, 기구, 시설 관련업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 이해증진과 상부상조로 축산기자재산업의 확고한 위치를 정립하고 계열간 협업과 공동기술의 개발 등으로 건전한 기업윤리 기반을 확립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구조개선 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이 비교적 수입개방에는 강한 반대를 하면서도 기자재에 대해서는 외국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런 현상이 국내기자재의 수준이 낙후되어서인지 아니면 인식이 잘못되어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양창욱 : 이 문제는 어떻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축산기자재의 역사가 모방에서 개량으로 다시 독창성의 수준까지 와있는 형편에는 있지만 아직도 공업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모방이 쉽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탓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연구개발

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농가들이 초창기 때의 국내기자재 수준만 생각하여 외제품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들은 기술 수준이 인정되어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정도이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기자재의 수준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믿고 쓸 수 있다고 보여지며, 아프터 서비스 면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축산기자재협회가 농림수산부 축산국 산하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전문성이 인정되었다는 점만 보아도 이해가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금년에 중점을 두어 시행해 나아갈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양창욱 : 업계가 불경기를 맞이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당장 몇 천만원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축산업 구조개선 정책과 병행하여 기자재 업체도 장

기 용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과 앞서 언급한 바대로 공업소유권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고 덤핑을 방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길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부품의 공동구매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공동 브랜드사업을 활성화시켜 한국형 독자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들이 이루어져야 기자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축산농가의 자동화에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생산비도 절감되어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자동화 농가의 최대 애로사항인 A/S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요

원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 요원 양성도 있겠지만 농장 관리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나갈예정입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나 관련업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用)

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1.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한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한다.
3. 사용 용량을 반드시 지킨다.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한다.
5.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지킨다.
6.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않는다.
7.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한다.
8.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먹인다.
9. 동물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 유지한다.
이 기록은 시장출하와 치료시에도 필요하다.
10.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인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도움을 청한다.